

# 새로운 조경수 51

## - 덜꿩나무 -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종류와 생육특성

덜꿩나무류는 인동과 가막살 나무속에 속하고 우리 나라에는 덜꿩나무와 그 변종으로 잎이 작고 흔히 잎이 갈라지는 가새덜꿩나무 (var. taquetii REHDER), 잎이 원형(圓形)에 가깝고 갈라지며 전체가 대형인 개덜꿩나무 (var. vegetum NAKAI)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열매가 황색인 노란덜꿩나무, 나비 덜꿩나무등 많은 종류가 있다.

덜꿩나무는 우리 나라 중부 이남의 표고 100~1,600m의 산야에 자생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고 있다. 내한력(耐寒力), 내음력(耐陰力), 내건력(耐乾力)이 강한 편이지만 내염력(耐鹽力), 내공해력(耐公害力)은 보통이다. 생육적지는 음지, 양지 관계없이 토양수분이 중용정도인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조경수로 식재되고 있는 나비

덜꿩나무는 일본과 중국에 분포하고 있다.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덜꿩나무는 가막살나무처럼 흰색의 작은 꽃이 수십개씩 모여서 가지 끝에 무더무더 피어 있는 꽃송이와 가을에 붉게 익은 열매는 탐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조경수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나무다.

특히 최근에 도입되어 조경수로 활용되고 있는 나비덜꿩나무는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로 중국에서는 꽃과 화서의 모양이 마치 나비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하여 호접희주화(湖蝶戲珠花)라고 부르고



옆:덜꿩나무 화서  
아래좌측:덜꿩나무의 개화전경  
아래우측:덜꿩나무의 익은 열매





1. 나비덜꿩나무의 개화 전경. 2. 덜꿩나무의 열매와 잎. 3. 덜꿩나무의 결실 전경. 4. 나비덜꿩나무의 화서와 꽃. 5. 나비덜꿩나무의 결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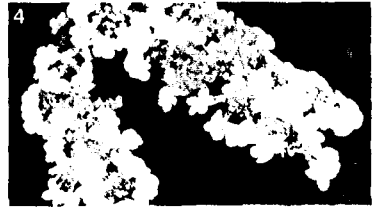
있다. 거의 수평으로 뻗은 가지의 마디마디에 대생(對生)하고 있는 단지(短枝) 끝에 피어 있는 꽃은 가까이서 보면 나비떼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앉아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눈이 내려 가지위에 쌓여 있는 것같이 보기만하여도 시원한 설경(雪景)을 만끽케 하며 꽃이 지고 난 후에 가지위에 하나들 줄을 지어 곳곳이 선 긴 화경(花梗)위에 붉게 맺고 있는 많은 열매는 탄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절경(絶景)이다.



재에서부터 대면적의 집단식재 등 어떤 조경공사에도 활용이 가능한 수종이다.

**번식 및 양묘방법**

덜꿩나무의 번식은 파종, 삽목, 분주(分株)의 방법이 가능하며 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법은 9~10월에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果肉)을 제거한 후 곧바로 젖은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을 하든가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하여 2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파종을 하여야 하며 m<sup>2</sup>당 파종량은 30cc 또는 16g정도(종자 입수로는 약 600개 정도)를 산파(散播)하고 0.5~1cm 두께로 복토를 하고 상토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

현재는 조경수로서 활용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은 수종이며 소면적의 단목식  
 <표 1> 덜꿩나무의 종류

| 국 명    | 학 명  | 일본 명    | 영 명      |
|--------|--|---------|----------|
| 덜꿩나무   | Viburnum erosum THUNB.                       | 코바노카마즈미 | Viburnum |
| 가새덜꿩나무 | Viburnum erosum THUNB. var. taquetii REHDER. | 사이코카마즈미 | -        |
| 개덜꿩나무  | Viburnum erosum THUNB. var. vegetum NAKAI.   | 이스카마즈미  | -        |
| 나비덜꿩나무 | Viburnum tomentosum THUNB.                   | 야부테마리   | -        |

〈표 2〉 수종별 특성

| 수종명     | 가지와 잎  | 꽃과 열매  | 분포지역   | 생육입지                         |
|---------|--|--|--|------------------------------|
| 덜꿩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2m 정도 차라고 여러개의 줄기가 지면에서 부터 총생함.</li> <li>· 어린가지는 성모(星毛)로 덮혀 있음.</li> <li>· 잎은 대생하고 장난형(長卵形) 또는 난상장난형임.</li> <li>· 잎의 길이 4~10cm 나비 2~5cm며 잎자루의 길이 2~3mm로 짧음.</li> <li>· 잎자루에는 좁은 탁엽이 있고 털이 있음.</li> <li>· 잎가장자리에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고 점첨두(漸尖頭), 원저 또는 심장저임.</li> <li>· 잎의 표면에는 성모가 드문드문 있고 뒷면에는 성모가 밀생함.</li> <li>· 잎뒷면 엽맥이 거드랑에 백색 또는 갈색의 긴털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꽃의 지름 6~7mm.</li> <li>· 화서는 복산형화서(複傘形花序)로 짧은 가지끝에 달리며 한 개 화서의 지름은 6~8cm정도 임.</li> <li>· 꽃받침에 성모가 있고 꽃받침의 열편은 난상원형임.</li> <li>· 수술이 꽃잎보다 약간 길고 자방(子房)에 털이 없음.</li> <li>· 열매는 핵과(核果)로 9~10월경에 빨갭게 익음.</li> <li>· 열매는 난상원형으로 지름 6mm 정도임.</li> <li>· 종자는 양쪽에 홈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 임남 지역</li> <li>· 표고 100~1,600mm.</li> <li>· 일본, 중국에도 분포</li> </ul> | 음지, 양지 구별 없이 토양수분이 중용인 사질양토. |
| 나비 덜꿩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3m 정도 자람.</li> <li>· 지면에서부터 여러개의 줄기가 총생하고 어린가지에 털이 있음.</li> <li>· 잎은 대생하고 1년생가지의 잎은 광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3년생가지의 잎으로 난형 또는 난상타원형이며 2년생가지의 잎이 가장 작고 난형 또는 원형임.</li> <li>· 1년지의 잎의 길이 9~13cm 지름 6~7cm, 2년지의 잎의 길이 6~7cm, 지름 4~5cm, 3년지의 잎의 길이 7~8cm 지름 5~6cm.</li> <li>·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첨두, 원저임.</li> <li>· 잎자루의 길이 1~2cm 털이 밀생함.</li> <li>· 잎의 앞뒷면과 뒷면 엽맥상에 잔털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5~6월에 백색으로 피.</li> <li>· 화서는 산방화서(繖房花序)로 가지마다 대생하는 단가지위에 달림.</li> <li>· 화서의 외측에 중성화(中性花)가 피고 중앙에 유성화(有性花)를 돌려 산다.</li> <li>· 유성화는 꽃잎이 5개로 깊게 갈라지고 수술이 꽃잎보다 길어서 꽃잎 밖으로 나옴.</li> <li>· 화경(花梗)은 3~5cm고 유성화의 꽃잎은 5~6mm이며 암술은 1개로 주두가 3개로 갈라짐.</li> <li>· 열매는 광난형(廣卵形)이고 처음에는 붉은색이나 차츰 흑색으로 익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중국에 분포</li> </ul>   |                              |

여 짚을 얇게 깔아 주든지 짧게 썰어서 깔아준다. 약 1개월이면 발아하고 2~3회 정도 솎음을 하여 m<sup>2</sup>당 200본 정도 잔존시킨다. 그리고 삼목번식은 춘기(4월)삼목도 가능하고 하기(7월말)삼목도 가능하다. 춘기 삼목시의 삼수는 전년지(前

年枝)를 이용하고 하기 삼목시에는 당년지(녹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삼수용 가지는 굵은 가지와 맹아지(萌芽枝)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삼수의 길이는 10~15cm로 잘라서 하단부를 예리한 칼로 단번에 엇각은 다음 안내봉(案

內棒)으로 삼목을 한다. m<sup>2</sup>당 삼목본수는 200본 정도가 적당하고 삼목 후에 비음율(庇蔭率) 50%정도의 비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것이 좋으며 하기 삼목의 삼수는 상단부에 3~4개로 잎을 남겨 두어야 한다.

**조경수**